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 **축복교회**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어둔 날 다 지나고 우린 주를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Behold
기도		김한솔 형제
성경봉독	사도행전 18장 18절 - 28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사람을 살리는 노래	다같이
봉헌기도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강성경 자매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청년부 소식

- 오늘 친교 | 안금자 권사님께서 준비하였습니다.
- 오늘 친교 후 뒷정리는 한솔셀 (토복셀) 입니다.
- 이번주 토요일 2월 17일은 밀알 봉사가 있습니다.
- 교회 지하실 레노베이션 | 2월 3일 - 2월 10일 오후 1시
어제 토요일에는 인테리어와 가구배치를 하였습니다. 카페트가 있는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남은 기간동안에는 추가 인테리어를 하고 마무리 정리를 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모두 실내 슬리퍼를 신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2주간 수고해주시고 점심을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셀별로 묵상 캠페인 / 청년부 전체 필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 셀별 묵상캠페인 : 정해진 본문을 따라 묵상을 나눕니다
 - 청년부전체 필사 릴레이 : 각 사람에게 할당되어 맡겨진 본문을 필사하고, 그 사진을 단독방에 올려 인증을 합니다. 모두의 필사로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 찬양집회 | 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 주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 홍보 : 찬양집회 포스터를 찾아라!
우리 지역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찾아서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Newblessingchurch 인스타 계정을 태그해주세요!
제일 많이 인증한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2/11	김한솔	토복셀
2/18	송윤숙	은평셀
2/25	유요한	깊셀
3/3	연합예배	다함께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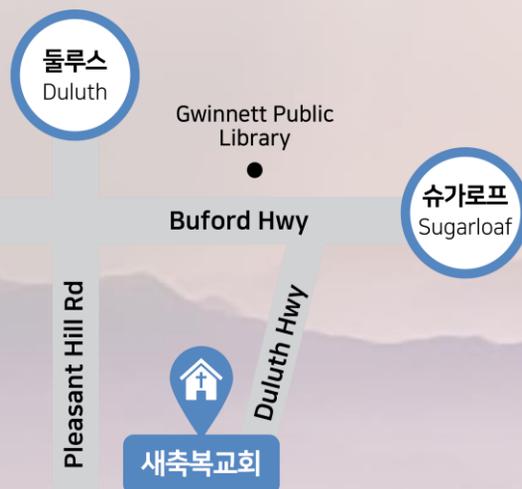
주일 장년예배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레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20240211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18장 18-28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안에서 허락하신 만남
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입니다**

바울의 동선을 따라가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든든
히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로 향하
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한 바울은 곧 바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
기 보다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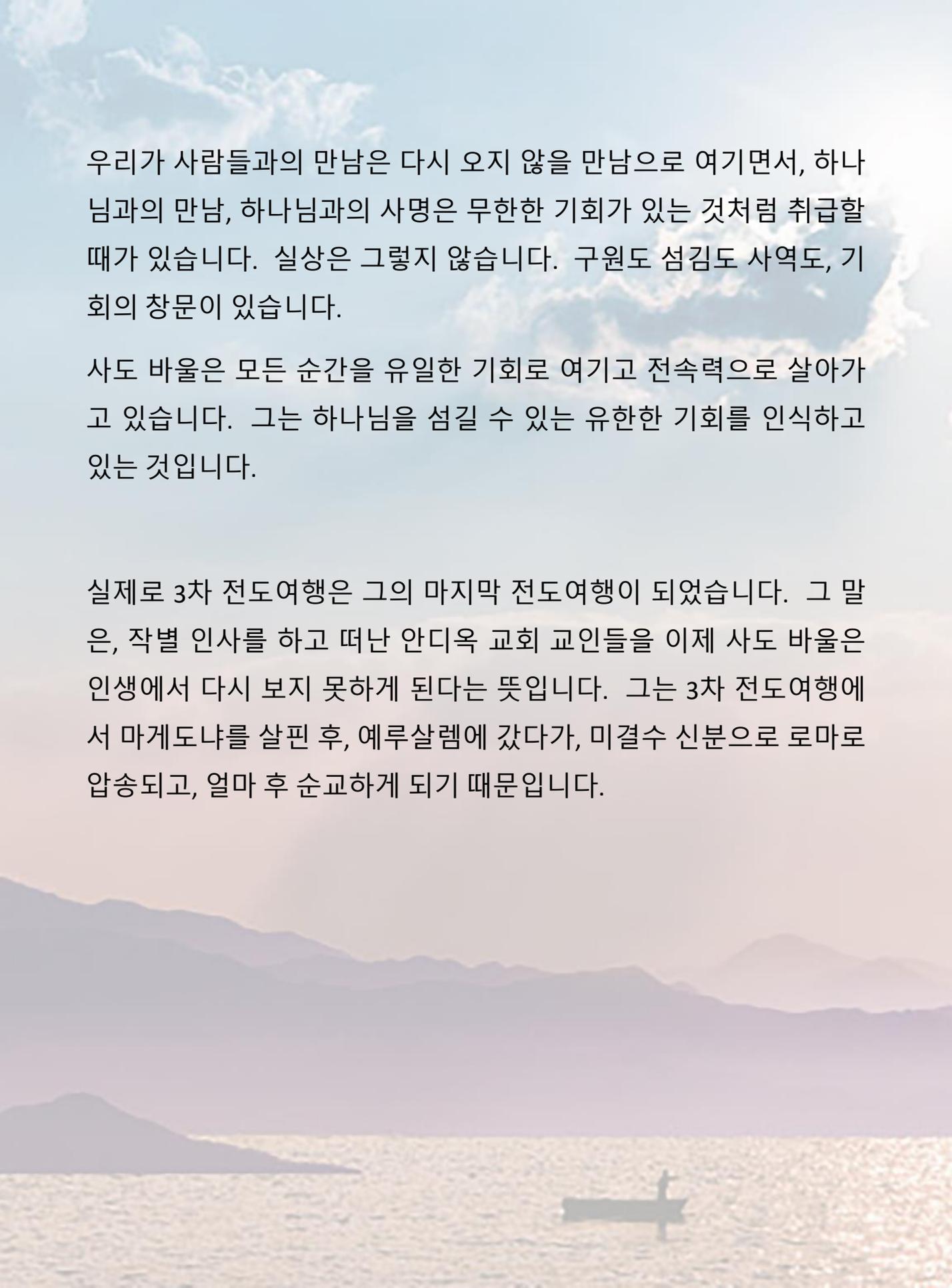
또한, 그 임무를 감당한 후에는, 서둘러서 에베소를 떠나고 항구도시인 가이사랴를 거쳐 자신을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행 18: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다녔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이미 확보된 구원이지만, 유대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기회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그렇게 취급 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인생의 부르심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느낄 때, 정성스럽게 그 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시 오지 않을 만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명은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섬김도 사역도, 기회의 창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을 유일한 기회로 여기고 전속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한한 기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차 전도여행은 그의 마지막 전도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3차 전도여행에서 마게도냐를 살핀 후, 예루살렘에 갔다가,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얼마 후 순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직책을 가지며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필요를 따라 기쁨으로 봉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최근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 기쁨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낀 기쁨과 어떻게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Q.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Q.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길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Q. 새축복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환대로 온 교회가 유기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는지 여러분의 바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그 세워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둘째,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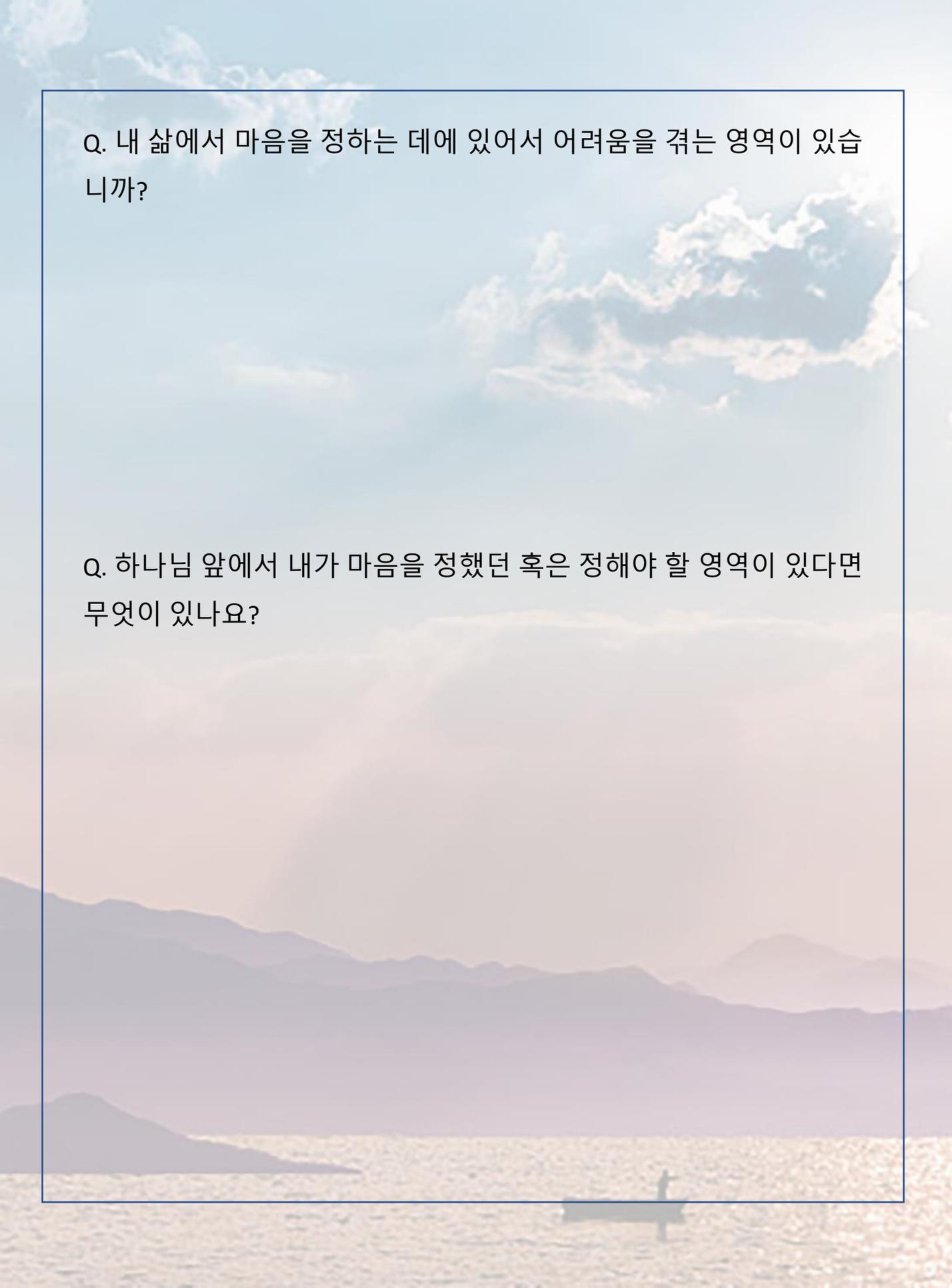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또 한가지 이유를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봅시다.

(행 18: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동안 바울이 얼마의 기간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실인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무엇을 서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 정도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더라도,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는 정도로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결단과 서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댈 때에 우리는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Q. 내 삶에서 마음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있습니까?

Q.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던 혹은 정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셋째, 제자의 삶을 걸어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크기가 로마제국에서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유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곧 떠나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제자를 낳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신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마주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자들로 서게 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기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성경지식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명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 위에는, 그를 본받아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Q. 신자를 넘어 제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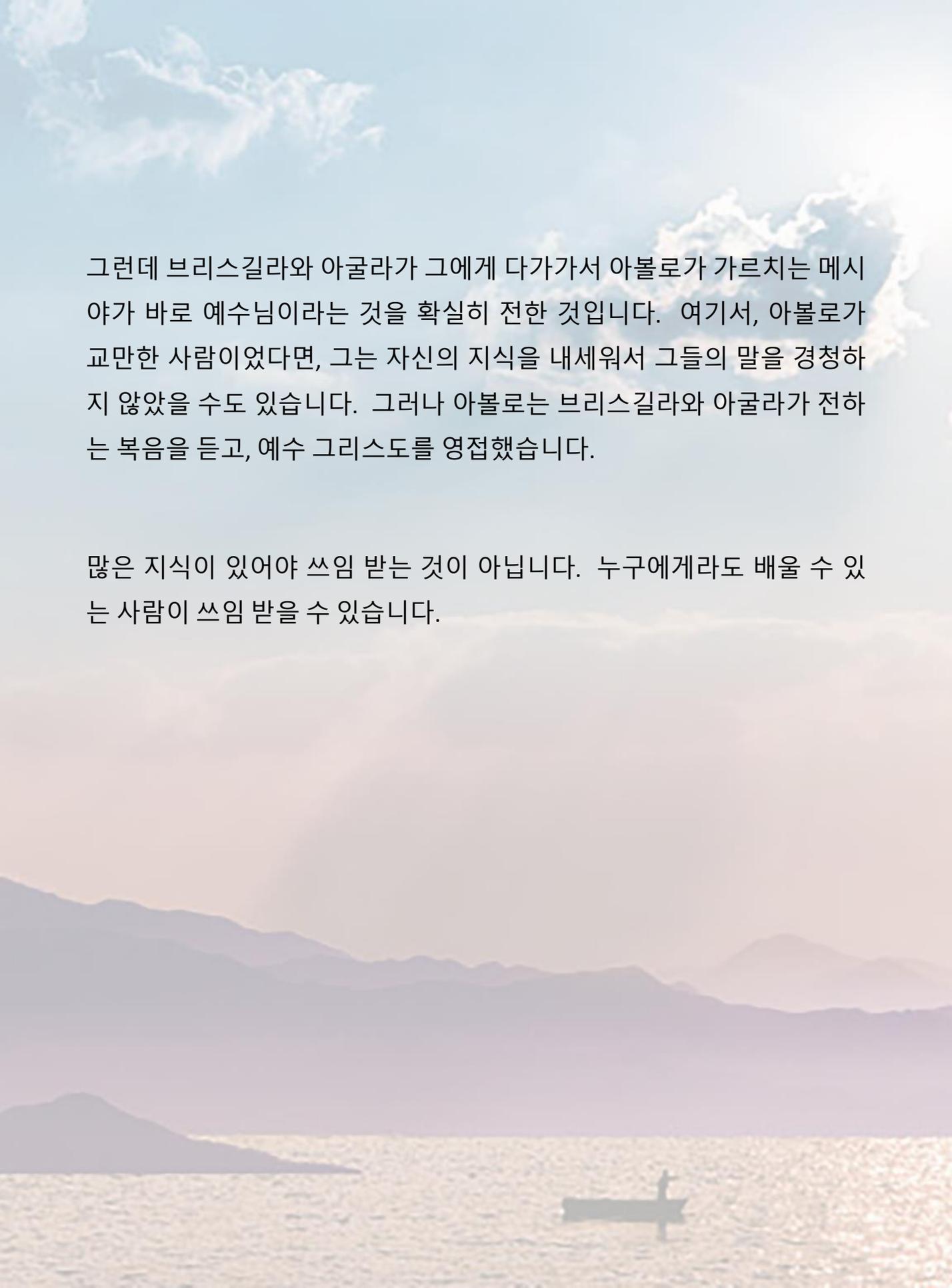
Q.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제자로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번째, 누구에게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볼로가 “겸손하여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볼로의 배경과 그의 은사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성경(구약)에 능통하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있지 않았고, 엄청난 양의 양피지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1권 분량의 양피지와 파피루스만으로도 박물관을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아볼로는 그 방대한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상은 몰랐습니다. 즉 오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르치는 것과 듣고 배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 집니까?

Q. 말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듣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만, 겸손하게 듣고 경청하고 배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Q. 사람들에게서 싫어할 이유, 나와 맞지 않는 이유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배울 점을 찾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성숙은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배울 것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내가 배우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셀원들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